

한국어 주제/주어 조사 ‘는’, ‘가’의 패러다임 -수학적 모형과 교재분석을 중심으로*-

최 수 영

한국어의 조사 ‘는’과 ‘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어 왔으나¹ 두 조사의 설명체계에 대해서는 많은 혼란과 논란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이중주어 구문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진법적인 고찰에 의한 2차원적 그리고 3차원적인 수학적 패러다임을 설정하여 ‘는’과 ‘가’의 의미론적, 통사론적, 화용론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 수학적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주제와 주어에 사용되는 ‘는’과 ‘가’의 의미를 분석해 보았고 실제 언어현상에 나타나는 두 조사의 양상을 검증하기 위하여 교재분석을 실시하고 통계처리를 해 보았다. 교재분석의 결과는 ‘는’과 ‘가’의 수학적 패러다임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언어구조와 의식구조의 연관과 언어현상에 수학적 모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1. 서 론

중국어나 일본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는 주제가 현저한 언어이다.² 따라

*본 논고는 필자가 근무했던 브리감 영 대학교(Brigham Young Univ.)에서 연구 지원을 받아 서울대 어학연구소의 객원 연구 교수로 있으면서 발표했던 논문(어학연구 20(1984), 233-250)의 후속 연구이다. 본 논고의 개념 정립에 도움과 자료를 제공해 준 서울대의 이기문, 김완진, 이정민, 김한곤, 박남식, 이상억, 임홍빈, 양동휘 교수님들께 감사하며, Roman Jakobson의 패러다임에 대하여 도움을 준 브리감 영 대학의 John Robertson 교수와 그의 여려모로 도움을 준 동 대학의 Robert Blair, Donald Jarvis, Don Norton 교수들께도 감사한다. 본 논고는 원래 영어로 써서 네덜란드 Mouton사의 Linguistics 24(1986)에 실렸으며 한국 독자들을 위하여 동양의 음양설과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검토하면서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을 보완하였다.

¹ 한국어의 주제/주어조사 ‘는/가’는 일본어의 wa/ga와 양상이 비슷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일본어 wa/ga의 대표적인 연구들을 참조하고 인용하였다. 한국어 ‘는/가’는 일본어 wa/ga와는 달리 즉 ‘는/가’는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구의 후치사로, ‘은/이’는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구의 후치사로 나타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두 형태의 대표형으로 ‘는/가’를 쓰겠다.

서 다음과 같은 주제-평언 구조의 문형이 많이 쓰이며, 영어권 사람들은 이러한 구조를 이중주어라고 흔히 말한다. 일반적으로 ‘는’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왼편 명사구는 주제라 하고, ‘가’와 결합한 두번째 명사구는 주제에 대한 평언(서술부)의 주어로 간주한다.

- (1) 코끼리는 코가 길다.
- (2) 그 나무는 뿌리가 크다.
- (3) 생선은 도미가 맛이 있다.
- (4) 냉장고는 금성이 좋다.
- (5) 바나나는 철수가 좋아한다.

이러한 주제-평언의 문형에 있어서 문제점은 <그림-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주제에 사용되는 ‘는’과 주어에 사용되는 ‘가’가 주제와 주어에도 나타날 경우가 있게 되고 이들이 나타내는 의미와 관심의 초점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주 제	평언(서술부)	
		주 어	술 어
는	{ 코끼리-는 }	b → { 코-는 }	길다
	{ 코끼리-는 }	a → { 효-는 }	
가	{ 코끼리-가 }	d → { 코-가 }	길다
	{ 코끼리-가 }	c → { 효-가 }	

<그림 1> 주제/주어 조사 ‘는/가’의 패러다임적 구조: 화살표시는 문장을 형성하기 위한 각 요소들의 가능한 조합들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코끼리의 코를 기술하는 데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가능한 문장이 생성된다.

- (6) a. 코끼리는 코가 길다.
- b. 코끼리는 코는 길다.
- c. 코끼리가 코가 길다.
- d. 코끼리가 코는 길다.

이와 같이 형성된 각 문장의 의미는 어떻게 다르며, 또한 코끼리나 코에

² Li & Thompson(1976)은 주장하길 중국어는 주제가 현저한 언어이고 한국어와 일본어는 주제와 주어가 현저한 언어라고 하였다. 그러나 손호민(1980)은 한국어도 중국어와 같이 주제가 현저한 언어라고 규명하였다.

강세를 주면 가능한 조합은 16가지가 되는데³ 각 문장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편 주어인 코는 ‘는’ 또는 ‘가’와 함께 쓰여서 주제의 자리인 왼쪽에 올 수도 있고 코끼리도 주어의 자리인 오른쪽에 올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면 총 32가지의 각기 다른 문장의 형성이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가능한 모든 문장이 실제로 모두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왜 그런가? 주제 그리고 주어와 함께 쓰이는 ‘는’과 ‘가’를 설명하고 기술할 만한 체계가 있는가? 이런 복잡한 언어현상을 규명해 주는 단편적인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체계적인 설명이나 모형이 없었다.

2. 대표적인 언어학자들의 문제 제기

2.1. 한국어 조사 ‘는’과 일본어 ‘WA’는 두 언어에 있어서 가장 교묘한 것이고 오해를 일으키는 것이며, 이들은 두 언어를 영어와 구별짓는 특징이다(Kim 1967: 106).

2.2. 한국어의 ‘는’과 ‘가’에 대해서는 많은 언어학자·국어학자·한국어를 외국어로 가르치는 교사나 학생이 고민하여 왔고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골치거리이다(이정민, 이상억, 임홍빈, 윤희원, 1984년 개인 면담).

2.3. 이 주제에 관하여 박사 학위 논문을 썼고 또한 두어 개의 논문을 썼지만 구름 잡는 것 같고 영어학자가 국어 문제로 너무 빠져드는 것 같아서 그만두었다(양동휘, 1984년 개인 면담).

2.4. 당신이 다루고 있는 문제가 한국 언어학자들에게 두통거리이며 한국어 문법을 통일하려는 문교부의 연구과제의 제일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이 문제를 연구하여 해결하는 것은 한국어 문법 문제의 절반을 해결한 것과 같다(이기문, 1984년 개인 면담).

2.5. 일본어의 ‘WA’와 ‘GA’ 사이의 의미 구별은 일본어의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계속해서 고통을 주는 문제이다(Kuno 1973: 37).

2.6. Kuno가 이 문제에 대하여 제일 잘 규명했고 본인도 이것에 관하여

³ 가능한 조합의 총 합계는 대수 공식 2^n 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 공식 2^n 에서 2는 두 개의 변수에서 선택하는 것이고 $n=4$ 즉 (1) 주제나 주어, (2) ‘는’이나 ‘가’, (3) 주제에 강세나 무강세, (4) 주어에 강세나 무강세. 그리하여 $2^4=16$.

박사 논문을 썼지만 아직도 혼돈이 된다(Watabe 1978, 1984년 개인 면담).

2.7. 일본어의 'WA'나 'GA'에 대한 언어적인 분석이 지난 20여 년 간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WA'나 'GA'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된다(Russell 1985).

3. '는', '가'의 대표적 연구

Ramstedt(1939: 37-38)는 비교 언어학자로서 한국어를 연구하고 '가'가 붙은 주어는 서술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는'이 붙은 단어는 문맥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어서 뒤에 적당한 서술어, 정의 또는 기대되는 대조가 따름을 표시해 준다고 하였고, '는'은 또한 격조사가 아닌 강조 조사라 하였고, 주격, 대격, 처격, 도구격을 나타내는 데 쓰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승녕(1966)은 '는'은 주제격 조사이면서 기능상으로는 주격, 대립격 조건하의 주제, 부사의 역할을 하며, '가'와의 차이점은 '대립적 조건'을 표시하는 점이라고 하였다.

이기용(1967)은 통사 구조면에서 '가'는 주격 조사로서, 주어-동사의 관계를 강조 또는 명확히 하는 반면, '는'은 중성격 조사로서 주어-동사 관계를 비강조하며, '는' 자체에 대조의 뜻이 있다기보다는 대조적 구조에 그런 기능이 있으며 '가'에도 비슷한 대조관계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현대 언어학적 해석은 한국어는 주제가 현저한 언어이어서 맨 처음의 명사구는 주제이고 그 다음의 명사구는 평언의 주어(subject of the comment)이며 '는'은 처음의 명사구에서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이나, 그 다음의 명사구에서는 대조를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즉 '저 여자는 눈은 예쁘다.'에서 첫 명사구 '저 여자'에서는 '는'은 주제 조사이고 '눈은'에서의 '은'은 대조 즉 다른 부분은 예쁘지 않지만 '눈'은 예쁘다는 뜻이라고 설명한다(이정민 1973, 채완 1979).

그러나 이러한 설명 체계에 대하여 양동휘(1974, 1975)는 첫 명사구에 쓰인 '는'이라도 특별히 강세가 놓여 강조될 때는 대조를 나타낸다고 하였고, 양인석(1973)은 주제나 대조의 의미는 '는'이라는 특정한 요소에 의해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어순이나 문장 구조에 따라 표시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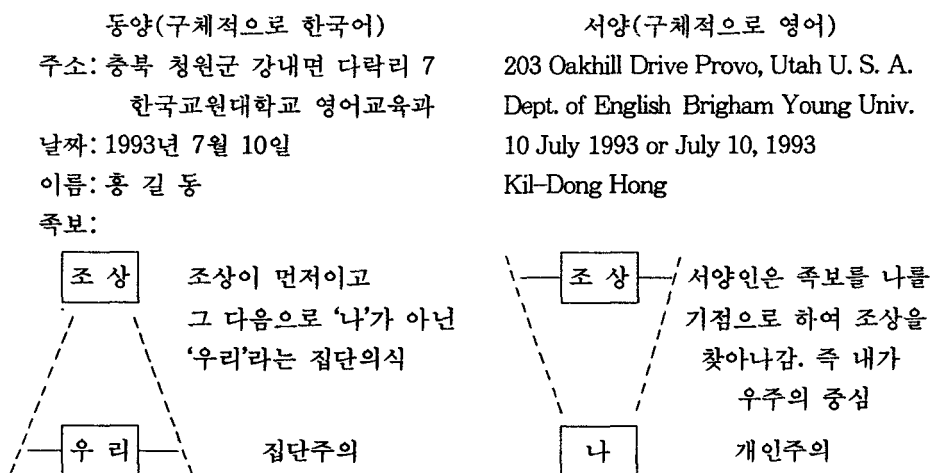
하여튼 요사이도 언어학회나 한국어교육학회에 참석해 보면 주제와 주어, '는'과 '가' 문제가 항상 대두되게 되고 그때마다 서로 다른 차원에서 조명을 해 장님들 코끼리를 기술하는 식으로 서로 상이한 주장들을 하여 혼돈이 가중되곤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 차원의 변수들을 고려한 2차원과 3차원적인 패러다임을 설정하여 복잡한 이 문제를 체

체접근방식(systems approach)으로 규명해 보려고 하였다. 체제접근방식으로 규명하기 위해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언어구조와의 상관관계와 Roman Jakobson의 모형을 고찰하겠다.

4.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언어구조

사회학자들은 흔히 동양을 수직사회, 서양을 수평사회라고 양분한다. 그리하여 동양 즉 수직사회는 서열·전통·가족·집단을 중요시하며, 수평사회는 평등·자유·개인을 중시한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동양이 과거지향적이고 서양은 미래지향적이라고 한다.

동양과 서양의 구분과 수직사회와 수평사회의 2진법적 구분과 비교 검토는 동양의 음양설같이 애매한 점도 없지는 않으나 자연현상과 사물을 설명하는 체계를 정립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수직사회의 의식구조가 서열적 집단주의적이고 수평사회의 의식구조가 수평적 개인주의적이라고 양분한다면, 그러한 2진법적 양분이 다음과 같은 현상 즉 의식구조의 표현 형태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위의 주소와 날짜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어식은 영어식에 비해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 바꾸어 말하면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general→specific)으로 정보를 나열하는 식이고 영어식은 상대적으로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 즉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specific→general)으로 나열하는 식이다. 이름을 쓸 때도 한국어식은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은 후에 쓰나 영어식은 반대이다. 또한 족보를 찾을 때도 한국어식은 조상부터 후손으로 찾아오고 영어식은 나부터 조상으로 찾아나간다. 이와 같이 정보를 조직하고 표

현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상대적 관계는 사물을 인식하고 조직하는 방법 즉 의식구조의 차이점에서 기인한다고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의식구조와 언어구조의 상관관계의 연구는 자연현상, 사회현상, 언어현상의 체계적인 설명에 큰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며(최수영 1984; Choi 1986), Sapir-Whorf 가설에 의하면 동양사람은 서양사람과 정보를 조직하는 양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Sapir-Whorf의 가설을 한국어의 언어구조에 적용해 보면 한국어의 언어구조는 한국인의 서열적인 의식구조의 표현 형태라고 말할 수 있으니, 즉 다음과 같은 문장들에서 주제-주어가 나타나는 양상이 큰 단위에서부터 작은 단위로 서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저 나무는 잎이 크다.
 한국은 산이 많다.
 미도파가 양복이 값이 천원이 싸다.
 그 신이 바닥이 구멍이 하나가 났다.
 문명국이 남자가 평균 수명이 짧다.

또한 소위 말하는 2중 주어에서도 한국에서는 큰 단위가 먼저 나오나(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 작은 단위가 먼저 나온다(일반적으로). 이러한 양상은 수직사회의 서열적 의식구조와 수평사회의 개인주의적 의식구조가 언어에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된다(의식구조가 먼저인지 언어가 먼저인지는 모르나 상호작용은 분명함).

코끼리는 코가 길다.	The trunks of elephants are long.
저 차는 불이 밝다.	The lights of the car are bright.
한국은 산이 많다.	There are many mountains in Korea.
일본은 온천이 많다.	There are many hot springs in Japan.
저 빌딩은 모퉁이가 어둡다.	The corner of the building is dark.

이러한 상대가 되는 언어 구조를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한국어는 주제/주어의 표현 양식이 ‘일반적→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영어는 ‘구체적→일반적’으로 나타난다.⁴

⁴ 또 하나의 신기한 현상은 한국어식 수필의 논리 전개는 귀납적으로, 영어식은 연역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Kaplan 1966, Norton 1978). 이러한 현상이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Peirce(1933: 326)가 주장하는 ‘상대(대립관계)가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동양의 음/양 학설의 주장과 같이 양이 없이 음이 존재할 수 없고 음이 없이 양이 존재하지 못한다는 상대성 원리에 기인한 것인가?

5. Jakobson-Robertson 모형

소련의 수학자요 언어학자로서 미국에 망명하여 하버드대학 교수가 된 Roman Jakobson은 언어현상을 수학적이고 철학적인 안목으로 규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의 후계자인 John Robertson(1980, 1982, 1983a, 1983b)은 Jakobson의 모형을 연구 조사하여 애매했던 부분을 더욱 분명하게 정립하여 Jakobson의 구조를 상세화하였고, 여러 언어학적 설명에 적용을 해 보았다. 본 연구는 Jakobson-Robertson모형(J-R모형)을 조사해 보고 한국어의 조사 ‘는’과 ‘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모형을 적용해 보려 한다.

J-R 모형체계의 기본 속성은 다음과 같은 원리와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1) 비대칭적인 대립(opposition that is asymmetrical)의 원리, (2) 가치범주(signatum)와 그 이름(signans); value categories(signatum) that has names(signans), (3) 정적인 면과 동적인 면(static and dynamic aspects).

5. 1. 비대칭적 대립

대립(opposition)이라 함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이 그들의 유사성 때문에 한 집단을 이루나, 구성소 중 하나의 유표적(marked) 특성 때문에 대립의 상태에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사자(lion)와 암사자(lioness)를 비교해 보면 둘 사이의 모든 특성은 거의 동일하지만 암사자는 암컷이라는 부가적 특성 혹은 유표적(marked) 특성을 지닌다. Peirce(1933), Jakobson(1972), Trubetzkoy(1975), Robertson(1980)에 의하면 모든 존재하는 것은 무표지(unmarked)와 유표지(marked)의 존재가 대립적인 관계에 있고, 대립의 한 요소가 다른 요소를 포괄하는 것은 대립의 대상들이 서로 비대칭적이며 계층적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Trubetzkoy(1975: 97)는 대립의 두 요소가 동일한 것이 아니며, 한 요소가 무표적(unmarked)이면 다른 하나는 유표적(marked)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 대립의 유표적 요소는 lion과 lioness에서처럼 무표적 요소에 비하여 부가적인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Waugh 1976, Jakobson 1972). 이들의 주장은 동양철학의 음양설과 상통하니 음은 양을 전제로 하고 존재하는 것이며 음과 양이 서로 대립의 관계를 이루면서 존재하나 서로 동등한 관계는 아니며 상호 보완적이며 음이 무표적(unmarked)이라고 한다면 양은 유표적(marked)이라고 할 수 있다. 유표적과 무표적 혹은 음과 양이 나타내는 정보의 유형은 대립관계의 양상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5.2. 가치 범주와 이름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가치범주(value categories)와 그 이름(value categories with its names)이 있게 된다. 아무런 가치 범주가 없는 이름은 의미가 없다. 가치범주는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의 어휘 중에 lion은 의미를 지니나 kawm은 의미값을 갖지 못한다.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은 누구나 어떤 두 이름 사이의 차이를 특정한 가치범주를 비교 검토하여 구별하게 된다. 언어 자체도 그렇고 언어의 체계를 규명하는 문법 체계도 가치범주가 있고 구체적인 이름이 있는 것이다.

5.3. 정적인 면과 동적인 면⁵

Robertson(1980)은 위의 두 가지 주장의 자연적이고 심리적 결과는 정적인 국면과 동적인 국면 양쪽을 갖는 유추구조를 갖는다는 것이다(the natural and psychological consequence of the above two tenets is analogical structure, which has both a static and a dynamic aspect). 그의 주장에 의하면, 어떤 특정한 기호체계에 있어서 정확한 정적인(static) 고찰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고, 동적(dynamic) 체계는 항상 기본적인 정적 유추체계를 전제한다. 동적인 것은 정적인 것을 전제하지만 그들은 동일한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정적인 것은 동적인 것을 항상 전제하지는 않는다. 잘 알려지고 주어진 것을 가지고 정적 체계를 세우는 것은 가능하지만, 잘 정의된 정적 체계 없이 알려진 것으로부터 알려지지 않은 동적 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떠한 기호체계도 동적인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적인 패러다임을 정립하여야 한다.

6. 패러다임 설정을 위한 가설

이 분야의 연구들을 분석하고 종합한 결과(최수영 1984, Choi 1986)와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의 문장구조를 가진 영어와 대조적으로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배열되는 한국어 문장구조의 일반적인 유형과 유표적 무표적 대립을 고려하여 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명제를 유도해 낼 수 있다.

⁵ 여기에 토론된 정적 국면과 동적 국면은 소쉬르(Saussure)가 주장한 랑그(langue)/빠롤(parole)과 관계가 있다. 즉 랑그는 언어권에 통용되는 정적 기호 체계이고 빠롤은 그 정적 기호체계의 동적 활용 즉 실제의 문장이나 대화에서의 활용이다.

6.1. 주제-평언 구조는 한국어 문형 구조의 기본이 되며, 평언(서술부)는 주어와 술어로 구성된다.

6.2. 주제는 주어보다 더 포괄적인 가치범주이다. 즉 주어는 주제의 부분 집합(subset)이고 주제의 구체적 경우(specific case of topic)이다.

6.3. 주제의 화용적 기능이 한국어 문장의 통사적 구조에 체계적으로 정착하여 굳어져 있고(Li & Thompson 1976, Sohn 1980), 주제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와 같은 주제가 우세한 언어에서는 무표지(unmarked)의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러나 영어와 같은 주어 우세 언어에서는 유표적(marked)으로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6.4. 어순은 대체적으로 화용적인 원리에 의하여 지배된다. 일반적으로 주어진 정보는 처음에 오고 구체적인 새로운 정보는 그 다음에 나타난다(Givon 1979: 223).

6.5. 문장 억양 강세는 구체적인 새로운 정보를 강조하고, 주제에 강세가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고 만일 나타난다면 굉장히 유표적인 경우이다(Givon 1979: 223).

6.6. ‘는’은 의미론적으로 항상 대조를 나타낸다. 그러나 대조의 정도는 연관된 명사구, 단어, 의사소통 문맥의 유표지나 무표지 환경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6.7. ‘가’는 의미론적으로 배타적 대조 다시 말하면 구체적 대조를 나타낸다.

6.8. ‘는’은 일반적인 범주나 정보를 나타내는 반면, ‘가’는 구체적인 범주나 정보를 나타낸다.

6.9. 일반적으로 ‘는’은 주제와 연관되어 있고, ‘가’는 주어와 연관되어 있다.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는’은 무표지의 일반적 주제와 연관이 있고, ‘가’는 유표지의 구체적 주제와 연관이 있다. ‘도’나 ‘만’도 유표지의 구체적 주제와 연관이 있다.

6.10.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 구조는 ‘주제+는+주어+가+서술어’이다. 주제는 주어보다 더 큰 범주나 단위가 된다. ‘는’과 ‘가’의 일반적 순서에

어긋나거나 도치되는 경우는 결합된 명사구의 다양한 유표지 정도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니 그 다양한 양상은 <그림 2>와 같은 패러다임 구조로 잘 설명이 된다.

7. 2차원적 패러다임

이들 10개의 명제에 근거하여 <그림 2>와 같은 패러다임 즉 2차원적 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2차원적 모형의 설명을 위하여 J-R모형의 근본 속성을 논의해 보겠다. 그 속성들은 다음과 같으니 (1) 비대칭적인 대립(opposition), (2) 이름(signans)을 갖는 가치 범주(signatum), (3) 정적(static)인 면과 동적(dynamic)인 면이다.

	주 제 어	서 술 부	
		주 어	술 어
	무표지/일반적 주어짐/일상적 0	유표지/구체적 새로움/초점(focus) 1	
는 대조적 무표지/일반적 0	코끼리-는 (주제와 대조면에서 이중으로 무표지) 00	코-는 대조적 주어 (주어에 유표적임) 10	길다
가 배타적 유표지/구체적 1	코끼리-가 유표지/구체적 주제 (배타에서 단일유표지) 01	코-가 배타적 주어 (배타와 주어에 유표적) 11	길다

<그림 2> 조사 ‘는’, ‘가’의 구조-의미적 패러다임: 숫자(0과 1)는 각 국면에서 무표지는 0, 유표지는 1을 부가하여 명사구와 조사의 조합에 따라 2차원적(0과 1의 조합)으로 표시하였다.

이 모델 <그림 2>에서 J-R모형의 모든 구성소를 찾아볼 수 있다.

7.1. 비대칭을 지닌 대립: 주제 대 주어, 대조 대 배타성

주제 ≥ 주어, 는 ≥ 가, 대조 ≥ 배타: 위와 같이 대립을 형성하고 있는 짝들은 서로 비대칭적이니 주제는 주어를 포함하고(즉 주어는 주제의 부분 집합), ‘는’은 의미론적으로 대조를 나타내고 ‘가’는 배타적 대조 즉 구체적 대조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배타적 대조는 대조의 구체적인 경우이며 대조라는 의미의 부분집합이다. 주제, ‘는’, 그리고 대조는 무표지이고; 주어,

‘가’, 그리고 배타는 유표지이다.

7.2. 이름이 지닌 가치 범주: 무표적(일반적) 주제; 유표적(배타적) 주제; 대조적 주어; 배타적 주어. 이들이 위 도식에서 보여주는 4가지의 범주를 나타내는 문법적 의미적 가치범주이다. 이들 각 범주의 이름은 위의 경우 ‘코끼리는’, ‘코끼리가’, ‘코는’, ‘코가’이며 주제 주어의 구분을 조사 ‘는’과 ‘가’에 따라 4가지의 가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7.3. 정적 유추와 동적 유추: 정적 유추체계는 ‘코끼리는’: ‘코끼리가’:: ‘코는’: ‘코가’이다. 그러므로 화자는 정적 체계의 가치 범주에 속해 있는 적절한 형태를 선택하여 발화를 한다. 그리하여 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동적 유추 체계는 화자가 전달하고자 원하는 세밀한 의미정보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 (7) a. 00-11: 코끼리는 코가 길다.
 b. 00-10: 코끼리는 코는 길다.
 c. 01-11: 코끼리가 코가 길다.
 d. 01-10: 코끼리가 코는 길다.

정적 유추와 동적 유추를 ‘바나나는 철수가 좋아한다’의 문장에 적용해 볼 때 정적인 체계는 ‘철수는 바나나를 좋아한다’이겠고 이러한 정적인 체계에서 의사소통이라는 동적 유추를 하기 위해 한국어의 주제화 현상을 도입하여 ‘바나나’를 주제화시켜서 ‘바나나는 철수가 좋아한다’라고 하게 된다. 즉 동적 유추인 주제화 문장은 정적체계의 문장 즉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전제하고 있으며 그 일반적 즉 정적인 체계를 활용하여 동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정적 원형을 변형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적인 체계와 동적 유추를 활용하면 주제화된 문장 그외 일반적이지 않는 문장들의 현상과 이유를 잘 규명할 수 있게 된다. 즉 예외적인 문장은 일반적인 문장(정적 체계)을 전제로 하여 또는 배경으로 하여 의사소통이라는 맥락에서 동적 유추를 하게 되는 것이다.

8. 의사소통을 위한 최대 대립 원리

Jakobson과 Halle(Jakobson 1971, Jakobson & Halle 1971)는 왜 어린이들이 mama(엄마), papa(아빠)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규명하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 대립 원리를 활용한다고 주장하였다(maximum polarization for communicative purpose). 그리하여 어린이들은 입을 다문

상태에서(labial sound) 입을 가장 크게 벌려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즉 mama나 ‘엄마’라고 할 때 입을 다물었다가 ‘아’를 연결하여야 입을 가장 크게 벌릴 수 있으니가 그렇게 발음하게 되며 세계 모든 언어가 공통적으로 ‘엄마’, ‘아빠’를 부를 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어린이가 mama, papa, 엄마, 아빠하고 말하는 이유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최대 대립 원리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최대 대립 원리(maximum opposition principle)를 한다는 Jakobson과 Halle의 주장에 따르면 위(7)의 4가지 문장에서 00-11이 가장 대립이 되는 상태(0에서 2로)이며, 가장 대립이 아닌 것이 01-10(1에서 1)이 된다. 00-10과 01-11 사이에 어느 것이 더 대립이 되는지를 알아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제 표지가 ‘는’이고, 0에서 1로 되는 것이 1에서 2로 되는 것보다 더 대립임을 가정한다면(즉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가 있게 되는 것, 즉 0에서 1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가 증가하는 것, 즉 1에서 2로 되는 것보다 더 대립이 됨) 00-10이 01-11보다 더 대립이므로 더 흔하게 나타나겠다.

위의 4가지 문장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00-11 즉 NP1+는+NP2+가+술어이다. 이러한 자연스런 경향때문에 일반적으로 ‘는’을 주제 조사로, ‘가’를 주어 조사로 간주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 자연스런 경향은 다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즉 대조적 의미를 갖는 조사 ‘는’은 일반적이고 무표적인 주제와 연관될 때 대조성이 약해지며, 유효적인 주어와 연관될 때 대조성이 강해진다. 왜 그러나 하면 ‘는’이라는 조사가 주어와 결합하는 것은 유효적이며(일반적으로 주제 조사이므로) 또한 ‘는’이라는 조사가 일반적이고 거의 독점하는 주어 조사 ‘가’의 자리를 대치했기 때문에 유효적이 되어 대조라는 본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4문장들이 의미상 어떻게 다른가를 조사해 보고 그 다음 영어로 번역해 보겠다. 우리는 주제가 우세한 언어에서 주제는 무표적이지만, 영어처럼 주어가 우세한 언어에서는 주제는 유효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Sapir-Whorf의 가설처럼 언어의 양상은 상대적이며 무표적, 유효적, 즉 음양의 나타나는 양상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리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제가 우세한 한국어를 주어가 우세한 영어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전하는 것은 어려워서 대략적인 번역을 해 보겠다.

(A) 00-11 문형이 최대 대립 원리에 의하면 가장 자연스런 유형이다. 주체인 코끼리가 주어인 코보다 큰 범주라서 일반적 주제 표지 ‘는’을 취하며, 주어 코는 주제보다는 적은 범주이므로 구체적인 주어 표지인 ‘가’를 취한다. 이 문장은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의 한국어 문형 구조를 완

전하게 따른다. 여기서의 주제(코끼리)는 주제가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 이 문장은 ‘코끼리라는 동물은 다른 동물에 비해 특히 코가 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영어로 번역해 보면,

‘(As you know), elephants (in general or in contrast to other animals), (especially) nose(s) is/are long.’

‘Speaking of elephants, their noses are long.’

‘As for elephants, their noses are long.’

(B) 00-10은 (A) 문형처럼 같은 주제의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코는 코끼리의 다른 몸체나 다른 동물의 코와 대조를 이룬다. ‘코끼리로 말할 것 같으면 그들의 코는 길다.’ 즉 코는 길지만 다른 것은 상대적으로 짧다든지 하여튼 코를 다른 것과 대비하여 비교하는 강한 대조의 의미를 갖고 있다. 코를 대조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으며 영어론 ‘Speaking of elephants, their noses are long (but other parts of their body such as hair or tail are short, or their noses are long compared to the noses of other animals)’.

(C) 01-11은 코끼리가 (A)의 무표적 주제와 비교하여 구체적 유표적인 주제가 된다. (A)에서는 코끼리는 다른 동물들과 모호하게 대조되었지만, 이 문장은 코끼리에 구체적으로 대조적 초점이 있다. 이 문장은 ‘특별히 코끼리는 코가 길다.’ ‘코가 긴 동물은 코끼리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영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Specifically elephants, the nose(s) is/are long.’

‘It is elephants whose noses are long.’

‘It is elephants that have long noses.’

(D) 01-10은 혼하지 않은 것으로 (가장 적은 대립 관계) (C)의 구체적이고 유표적인 주제의 특성을 지니고, (B) 문형의 코의 대조에 초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코끼리가 다른 부위에 비하여 코가 길다. 이 문장은 ‘(다른 동물 혹은 다른 부분과 비교해) 특별히 코끼리는 긴 코를 가지고 있다.’ ‘긴 코를 지니고 있는 동물은 코끼리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영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Specifically elephants, the nose(s) is/are long (compared to other body parts or to other animals).’

‘It is elephants that have long noses, (but…)’

9. 3차원적 패러다임

위의 2차원적 기본체계에 근거하여 더욱 역동적이고 화용적인 3차원의 체계로 발전될 수 있다. 화용적 체계는 항상 기본적인 2차원적 유추체계를 전제한다. 그리하여 화용적 체계는 기본적인 2차원 체계를 전제하지만 기본적인 2차원적 체계는 화용적인 3차원적인 것을 항상 전제하지는 않는다. 동적(dynamic)인 의사 소통에서 구체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억양 강세는 이들 문장사용의 화용적 차원을 제공해 준다. 그리하여 3차원적인 고찰은

- (1) 구조적인 차원 즉 주제-주어 관계
- (2) 의미론적 차원 즉 ‘는’과 ‘가’ 조사의 활용에 있어서 일반적 대조와 배타적 대조의 관계
- (3) 강세가 어디에 있느냐 즉 주제에 있느냐, 주어에 있느냐, 혹은 양쪽에 다 있느냐의 차원이다.

그리하여 3차원적 패러다임은 2차원적인 패러다임을 기본으로 하여 각 요소에 강세가 있으면 1을 첨가하고 강세가 없으면 0을 첨가하여 숫자의 제3단계에 표시하였다(예를 들면 2차원적 모형 00-11에서 주제에 강세가 있고 주어에 강세가 없으면 001-110으로 표시).

그러므로 <그림 3>은 위의 3차원적 국면들을 고려하여 각 차원, 즉 각 국면에 2진법의 수학적 기호를 사용하여 3차원적인 패러다임을 설정하였다.

	주 제 어	서 술 부	
		주 어	술 어
	무표지/일반적 주어짐/일반성 0	유표지/구체적 새로움/초점 1	
는 강한 대조 무표지/일반적 0	코끼리-는 일반적 주제 000 코끼리-는 대조적 주제 001	코-는 대조적 주어 100 코-는 강한 대조 주어 101	길다
가 강한 배타 유표지/구체적 1	코끼리-가 구체적 주제 010 코끼리-가 강한 배타 주제 011	코-가 배타적 주어 110 코-가 강한 배타 주어 111	길다

<그림 3> 주제/주어와 ‘는/가’의 화용적 패러다임: 강세는 대조와 배타의 의미를 강화하게 되고 2차원적 기본형에 강세가 있으면 1이 없으면 0이 첨가되어 3차원적으로 표시하였다.

주제나 주어에 강세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4가지 기본 유형(A: 00-11, B: 00-10, C: 01-11, D: 01-10)은 구체적인 하위 유형으로 나뉘어져서 총 16가지의 화용적 유형이(4기본형×4하위형) 나타나게 된다. 각 기본형에서 파생된 하위의 유형을 최대 대립 원리에 따라 대립이 많은 것(일반적)부터 대립이 적은 것(특수적)으로 순위를 정하면 (8)의 A, B, C, D와 같다. 예를 들면 기본형(A: 00-11)에서 파생된 하위의 4형 중에서 A(a): 000-111 유형이 가장 대립이 강하므로 가장 흔히 나타날 것이고 A(d): 001-110 유형이 가장 대립이 약하므로 가장 잘 나타나지 않고 특수한 상황에서만 그러한 유형을 쓰게 된다.

- (8) A. (a) 000-111 코끼리는 **코**가 길다
 (b) 000-110 코끼리는 **코**가 길다
 (c) 001-111 코끼리는 **코**가 길다
 (d) 001-110 코끼리는 **코**가 길다
- B. (a) 000-101 코끼리는 **코**는 길다
 (b) 000-100 코끼리는 **코**는 길다
 (c) 001-101 코끼리는 **코**는 길다
 (d) 001-100 코끼리는 **코**는 길다
- C. (a) 010-111 코끼리가 **코**가 길다
 (b) 010-110 코끼리가 **코**가 길다
 (c) 011-111 코끼리가 **코**가 길다
 (d) 011-110 코끼리가 **코**가 길다
- D. (a) 010-101 코끼리가 **코**는 길다
 (b) 010-100 코끼리가 **코**는 길다
 (c) 011-101 코끼리가 **코**는 길다
 (d) 011-100 코끼리가 **코**는 길다

이들 화용적 모형과 서열은 Givon(1979: 223)의 주장, 즉 강세는 주로 구체적인 새로운 정보에 초점을 둘 때 나타나고 주제에 강세가 나타나는 것은 흔하지 않다('prominent intonation stress marks the focus of specific new information and the topic intonation is less prominent')는 주장에 대하여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준다. 즉 구체적 새로운 정보인 '코'에 강세가 주어지는 것이 가장 대립이 되어 흔하게 나타나고(모든 A, B, C, D의 문형에서 (a)에 해당), 주제에 강세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대립 관계가 아니어서(A, B, C, D 문형의 (d)에 해당) 가장 잘 나타나지 않는 문형이 된다. 문

장의 각각의 범주에서 최대 대립 원리에 근거하는 서열에 따르면 주제 강세의 하위유형은 혼하지 않은 것이며, 주어 강세는 가장 혼한 하위유형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유표적인 현상 때문에 주제 강세는 혼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주제에 강세가 나타날 때는 주제의 대조성이나 배타성이 강화된다. 주제에 ‘가’와 강세가 오면 그 문장은 고도로 유표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그러한 유표적 유형은 아주 유표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된다. 예를 들어서 D(c)와 D(d)에서 꼬끼리는 한 번 알려진 정보이나 청자가 그 동물의 이름을 잊어서 다시 물어볼 때 ‘어떤 동물이 긴 코를 가졌는가?’에 대한 신경질적인 대답으로 사용될 수 있다.

4가지의 기본 유형에서 각각 또 다른 4가지의 하위유형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담화를 녹음하여 분석한다면 가능) 글로 된 교재에서는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똑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교재에는 4가지 기본 유형만 나타나게 되고 본 논고의 교재 분석은 2차원적인 패러다임만 증명하게 될 것이다.

10. 교재분석을 통한 패러다임 타당성 검증

2차원적인 기본 패러다임의 타당성을 설명적 예견적 모형으로서 검증하고, 주제와 주어 구조와 ‘는’과 ‘가’의 쟁점에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2차원적 패러다임에 기초를 두어)을 설정하였다.

10.1. 기본 문형 4가지 유형 중에는 가장 혼한 유형이 00-11 즉 NP1는+NP2가+동사일 것이며, 가장 혼하지 않은 유형이 최대 대립 원리에 따라 01-10 즉 NP1가+NP2는+술어일 것이다.

10.2. 일반적인 한국어의 문형 구조는 ‘주제+주어+술어’의 어순으로서, 영어의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의 어순과 대조적인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의 어순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는’은 주제 표지로 나타나고 ‘가’는 주어 표지로 나타나는 비율이 높을 것이다. 더욱이 다른 한정사 ‘도’와 ‘만’도 주제와 주어와 조합을 이룰 것이나 빈도수는 굉장히 낮을 것이다.⁶

⁶ 여러 연구(손호민 1980, 1981; 최수영 1984)가 한정사 ‘도’와 ‘만’도 주제 조사로 쓰인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한정 조사가 ‘는’과 ‘가’에 비하여 어떠한 빈도수를 가질 것인가는 보고된 바가 없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한정사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는’과 ‘가’와 결들여 분석해 보았다.

10.3. 한국어 어순은 일반적으로 SOV로 주장된다. 그러나 한국어가 주제 우세 언어이기 때문에 주제 표지 ‘는’으로 표시되는 Subject(NP1)가 ‘가’로 표시되는 경우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10.4. 한국어에서 주제나 주어는 문맥에서 이해될 때 흔히 생략된다. 그러므로 한국어의 많은 문형은 술어 하나에 명사구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 명사구에 ‘는’과 ‘가’가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동일할 것이다.

11. 교재 분석자료

교재 분석을 위해 여섯 개의 전형적인 한국어 전래동화와 한국에 관한 현대 수필 3개를 선택하였다. 2가지의 다른 유형의 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전래동화가 일반적인 한국인의 토속적인 의식의 표현이라고 생각되고 현대 수필은 고전적이 아니고 현대적인 의식의 표출인 것이라고 생각되어 전래동화와 현대 수필이 어떤 양상으로 다를 수 있을까 검토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선정했다. 여섯 개의 이야기는 ‘청개구리’, ‘호랑이 꼬리’, ‘거울’, ‘선비와 도둑’, ‘흑부리 영감’, ‘홍부와 놀부’이며, 3가지 수필은 ‘한국의 역사’, ‘한국의 생활’, ‘한국 교통’이다. 처음 4개의 전래동화는 국민학교 책에 흔히 나오는 이야기이며 한국어 독본(1979: 연세대 출판 1권 141-147)에서 선정했다. ‘흑부리 영감’은 국민학교 3학년 동아전과(1983: 117)에서 선정했고, ‘홍부와 놀부’는 국민학교 4학년 교과서(문교부 1980: 72-79)에서 선정했다. 현대 수필 중 처음 2개는 한국어 독본(문교부 1980: 148-152, 156-162)에서, 마지막 글 ‘한국의 교통’은 연세대의 한국어 독본(1979 1권 160-166)에서 선정하였다.

12. 교재 분석방법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기본적인 문장 유형에 따라 각 교재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NP1은 처음에 나오는 명사구(Noun Phrase)이고 PP1은 처음에 나타나는 후치사가 결합된 명사구(Postpositional Phrase)라는 뜻이다.

1.
$$\left. \begin{array}{l} \text{NP1} \\ \text{PP1} \end{array} \right\} \text{ 조사+} \left. \begin{array}{l} \text{NP2} \\ \text{PP2} \end{array} \right\} \text{ 조사+술어}$$
2.
$$\left. \begin{array}{l} \text{NP1} \\ \text{PP1} \end{array} \right\} \text{ 조사+술어}$$

〈표-1〉 각 범주에 대한 교재 분석 결과

범 주	사 례	%
I. NP1/PP1(NP2의 조사에 관계없이)과 같이 나타나는 조사의 분포(이 유형이 NP2에 어떤 조사가 결합되었느냐에 따라 다시 II, III, 혹은 IV로 분류됨.)		
1. { NP1-는 + NP2 + 술어 } * { PP1-는 + NP2 + 술어 }	{ 222 } * { 32 }	79%
2. PP1 + NP2 + 술어	23	7%
3. NP1-가 + NP2 + 술어	25	8%
4. NP1-도 + NP2 + 술어	18	6%
5. NP1-만 + NP2 + 술어	0	0%
합 계	320	100%
II. NP1/PP1(NPP1)**에 오는 ‘는’과 ‘가’의 비율과 NP2에 나타나는 조사의 분포		
1. (NPP1-는/ NP1-가)+NP2-가+술어	66/2	58/2%
2. (NPP1-는/ NP1-가)+NP2-는+술어	5/1	4/1%
3. (NPP1-는/ NP1-가)+NP2-도+술어	6/0	5/0%
4. (NPP1-는/ NP1-가)+NP2-로+술어	9/2	8/2%
5. (NPP1-는/ NP1-가)+NP2-만+술어	1/0	1/0%
6. (NPP1-는/ NP1-가)+PP2 +술어	19/2	17/2%
합 계	106/7	93/7%
III. 다른 문장 유형에서 ‘는’과 ‘가’가 나타나는 비율 분포		
A. NP1-도+(NP2-가 NP2-는)+술어	9/2	82/18%
B. PP1 +(NP2-가/ NP2-는)+술어	19/4	83/17%
C. (NP1-가/ NP1-는)+NP2+연결술어	4/25	14/86%
IV. NP2가 직접 목적어일 때 NP1에 오는 조사의 분포		
1. NP1-는+목적어 NP2+술어	123	85%
2. NP1-가+목적어 NP2+술어	14	10%
3. NP1-도+목적어 NP2+술어	8	5%
4. NP1-만+목적어 NP2+술어	0	0%
합 계	145	100%
V. 하나의 NP만 오는 문장의 조사 분포		
1. NP1-는+술어	14	48%
2. NP1-가+술어	12	41%
3. NP1-도+술어	3	11%
4. NP1-만+술어	0	0%
합 계	29	100%

* 문장(9)와 같은 이유 때문에 2가지 유형을 합쳐서 백분율을 계산함.

**NPP는 NP이거나 PP라는 뜻이다. 표 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개의 경우는 NP이나 때때로 PP가 나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주제는 주제 조사 ‘는’을 지나 다른 조사도 결합될 수 있다. 주제는 후치조사 ‘에’ 하나만 가지거나 그 조사에 ‘는’을 다음 예에서와 같이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표지 조사 ‘가’는 다른 후치사와 결합을 못한다(예문 9. d).

- (9) a. 한국‘은’ 산‘이’ 많다
 b. 한국에 산‘이’ 많다
 c. 한국에‘는’ 산‘이’ 많다
 d. *한국에‘가’ 산‘이’ 많다

일반적으로는 ‘는’과 ‘가’가 주제와 주어 조사이지만 다른 한정사, ‘도’, ‘만’, ‘로’도 주제나 주어 조사로 다음 예에서와 같이 쓰일 수 있다.

- (10) a. 철수도 학교에 갔다.
 b. 철수만 학교에 갔다.
 c. 술이 쌀로 되었다.

그러므로 위의 두 종류의 기본 문형에 따라 각 문장을 분류하였다. 각 문장을 <표-1>의 범주에 따라 분류한 다음 사례와 백분율을 계산하였다. 전통적 한국의 전래동화와 현대 수필의 두 종류의 교재분석에 상이한 경향이 나타나겠는가도 검토하기 위해 각각 다르게 분류해 보았으나 특별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아 각각의 교재분석을 합산하여 <표 1>이 형성되었다.

13. 교재 분석결과

첫째 가설은 00-11 유형이 가장 대립적이어서 가장 혼할 것이고, 다음은 00-10, 01-11이고, 가장 적은 대립인 01-10 유형이 가장 적게 나타난다는 것을 예견한다. 이러한 수학적 패러다임을 검증하기 위하여 모든 분석 자료를 재조직했을 때 놀랍게도 수학적 패러다임의 예측성을 확실하게 지지해주었다(표 2).

그 자료와 모형은 00-11을 가장 혼한 한국어 문형으로 간주하며, 01-10을 가장 적게 나타나는 문장 유형으로 간주하는 통찰력 있는 한국어 원어민

<표-2> NP1과 NP2에 오는 조사 ‘는’과 ‘가’의 분포

수학적 모형	한국어 문장 유형	사 례	%
A. (00-11)	NPP1-는+NP2-가+술어	66	89
A. (00-10)	NPP1-는+NP2-는+술어	5	7
C. (01-11)	NP1-가+NP2-가+술어	2	3
D. (01-10)	NP1-가+NP2-는+술어	1	1
총 계		74	100

의 본능적 판단이 왜 옳은지를 설명해 준다.

두번째 가설도 자료에 의하여 지지되었다. ‘주제+주어+술어’의 문장에서 주제 표지의 분포는 ‘는’이 나오는 사례는 131(86%), ‘가’ 11(7%), ‘도’ 11(7%), ‘만’ 0(0%)였다(표-1 II와 III을 보라). 주어 표지의 조사 분포는 ‘가’ 96(78%), ‘는’ 8(7%), ‘도’ 6(5%), ‘만’ 1(1%), ‘로’ 11(9%)였다(표-1 II와 III을 보라). 그러므로 다른 한정사들과 가능한 조합에서 주제 표지는 ‘는’에 의하여 86%가 나타나고 주어 표지는 ‘가’에 의하여 78%가 나타나고 있음이 밝혀졌다.

세번째 가설도 역시 지지되었다. ‘주제+목적 명사구+술어’ 유형에서 주제 표지의 분포는 ‘는’의 사례가 123(85%), ‘가’ 14(10%), ‘도’ 8(5%), ‘만’ 0(0%)였다(표-1 IV를 보라). ‘주제+목적어+술어’와 ‘주제+주어+술어’의 사례를 비교할 때 전자가 145이고, 후자가 124였다(표-1 IV대 II와 III-A를 비교). 그러나 목적어를 ‘가’와 ‘는’ 표지를 갖는 주어와 비교할 때 전자가 후자의 두 배로 145와 74였다(표-1 IV와 표-2). 그러므로 유표지 ‘는’은 일반 주제 표지로 ‘가’는 주어 표지로 간주된다면, 인구어식의 ‘주어+목적어+동사(SOV)’보다 ‘주제+목적어/주어+술어’로 기본 한국어 문형을 나타내어야겠다. ‘주제+목적어’와 주어에 ‘가’로 표지된 ‘주제+주어’ 분포의 비율은 3대 2로 145경우와 94이다(표-1 IV대 II와 III).

네번째 가정도 지지된다. 간단한 ‘NP1+술어’ 유형에서 NP1의 표지의 분포는 ‘는’ 14(48%), ‘가’ 12(41%), ‘도’ 3(11%), ‘만’ 0(0%)이다(표-1 IV). 한국인은 주어와 주제가 문맥으로 이해될 때 자유로이 생략되어 ‘는’과 ‘가’ 표지의 사례는 거의 동일하다. 이 유형에서는 주제가 생략되었는지 주어가 생략되었는지를 알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문장 유형에서는 주제와 주어는 동일하다. 주어는 주제의 구체적인 경우라는 명제는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14. 토론과 결론

교재 분석에 의한 결과는 설명적이고 예견적인 수학적 패러다임의 정당성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 수학적 패러다임과 교재 분석의 결과는 Li & Thompson(1976: 488)의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에 해답을 제공해 준다.

We are aware that subject markers (ga and ka) sometimes occur with the topics in ‘double subject’ constructions in Japanese and Korean respectively. It appears that subject markers can appear with topics in certain discourse situations, but we do not at present understand this phenomenon well enough to be more precise.

수학적 모형에서 00-11: NP1-는+NP2-가+술어 유형이 가장 자연스런 유형이므로 많은 언어학자들이 ‘는’은 주제 표지가 되고, ‘가’는 주어 표지가 된다고 기술한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는’은 NP1의 일반적(무표적) 주제 표지이며 NP2에 대하여는 유표적(대조적) 주어 표지이고, ‘가’는 NP1에 올 때는 유표적(구체적) 주제 표지이며 NP2에는 무표적(일반적) 주어 표지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조사 ‘는’은 일반적으로 첫 명사구(NP1)에서는 주제를 나타내고 NP2에서는 대조를 나타낸다고 설명한 언어학자(Lee 1973; 채완 1980)도 있는 반면 NP1에서의 ‘는’도 특별히 강세가 놓여 강조될 때는 대조를 나타낸다고 설명하는 언어학자(Yang 1974, 1975)도 있고, 어떤 학자는 상황에 따라서 주제나 대조 양쪽 다 나타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Yang 1973, Kuno 1973). 이러한 상반된 주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3차원적 패러다임을 관찰해 보면 그 언어학자들의 주장이 부분적으로는 정당하나 언어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3차원적으로 고찰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즉 3차원적 패러다임에 의하면 ‘는’은 의미적으로는 항상 ‘대조’이지만(이것이거나 저것의 관계가 아닌) 무표적 혹은 유표적 상황에 따라 그 ‘대조’의 의미가 크게 부각되느냐 수축되느냐 한다. 즉 ‘대조’라는 의미가 무표적(일반적) 주제에는 약하지만 유표적(구체적 혹은 특수적)인 환경 즉 NP2(주어)에서는 ‘대조’의 의미가 강해지고 또한 일반적인 어순이 도치되거나 주제화된 문장(예를 들면 ‘영희는 철수가 좋아한다.’)에서는 대조가 다시 강해지고 일반적인 어순이라도 주제에 특별히 강세가 오면 Yang(1974, 1975)의 주장대로 대조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렇더라도 ‘는’의 의미는 항상 ‘대조’라고 할 수 있으니 다음과 같은 예를 생각해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 한국인이 한복을 입고 서양 사람들 모임에 참석하면(유표적 상황), 한복의 의미가 돋보이나 모두 한복을 입고 있는 한국사람들의 모임에 가면(무표적 상황) 별로 돋보이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그 한국인은 한복을 입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H₂O는 물을 의미하나 온도의 차이나 상황에 따라 수증기, 눈, 얼음, 물로 변한다. 그러나 H₂O의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와 같이 ‘는’의 의미는 항상 ‘대조’이지만 무표지와 유표지의 상황과 정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이고 자연스런 한국어의 문장 유형은 ‘주제+주어+술어’이며 주제는 주어보다 큰 범주를 나타내고(예: 코끼리는 코가 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작은 범주를 나타내는 주어가 주제와 도치될 수 있어서(코는 코끼리가 길다) 이러한 경우를 주제화된 주제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제화된 주제는 일반적이고 정적인 유형을 전제로 하고 동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변형되어 의미적 추론을 어렵게 한다. 그렇더라도 기본 체계인 정적인 체계를 확실히 해 둔다면 그러한 동적인 상황과 의미를 잘 규명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면 정적인 일반형 ‘코끼리는 코가 길다’에서 변형된 ‘코는 코끼리가 길다’에서 이 변형된 문장은 정적인 일반형을 전제로 하고 (figure-ground의 관계) 동적인 의사소통을 특수한 상황에서 표현하는 것이며 (예를 들면 코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특별히 코끼리의 코를 이야기 하기 위하여) 3차원적 패러다임을 쓰면 의미를 규명할 수 있게 된다. 변형된 ‘코는 코끼리가 길다’와 ‘코가 코끼리는 길다’에서 왜 전자가 후자보다 더 자연스러운 문장인지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여튼 한국인은 큰 범주의 ‘NP1-는+하위 범주의 NP2-가+술어’의 유형에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이 한국인의 서열 의식 즉 수직적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된다.

주제의 범주는 주어의 범주보다 더 크고 한국어의 ‘일반적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그러한 언어 구조에 조건화되어 있는 한국인의 서열의식, 즉 수직적 사고의 관련은 Kuno(1973: 71)의 다음과 같은 질문에 주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어떤 유형의 NP가 주제가 될 수 있거나 없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제화는 주어화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넓은 범위를 차지한다.’

주제가 우세한 언어에서는 주제는 기본적인 자연스러운 무표적 현상이다. 그러나 영어와 같이 주어가 우세한 언어에서의 주제는 유표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어적인 패러다임으로 훈련을 받은 많은 언어학자들이 한국어를 영어적인 패러다임으로 설명하려고 하였고, 그리하여 상당한 혼란이 있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자연스럽고 무표적한 언어현상이 영어권에서는 부자연스럽고 유표적인 현상들이 많이 있다(예를 들면 주제, 친족어, 선조에 대한 개념). 이러한 현상은 문화가 다르고 의식구조가 다르고 정보를 조직화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러한 방법이 언어적 표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언어현상을 규명하는 체계를 세울 때 그 언어권의 문화와 의식구조 그리고 정보를 조직하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한국어의 언어체계를 기술할 때 무표적과 유표적, 언어와 사고의 상대성 원리, Sapir-Whorf의 가설, 그리고 Kenneth Pike의 간칭(Givon 1979: vix), 즉 ‘언어는 필연적으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 체계, 문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우주 현상을 이해하는 틀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만 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현상 즉 다양한 변수들을 2차원, 3차원적으로 구조화하여 패러다임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 언어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지만 그래도 시스템이다. 언어학자들이

언어현상에 관한 패러다임의 설정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다면 복잡한 인간 언어의 시스템을 설명하고 체계화하는 데 더 좋은 결과가 기대될 것이다.⁷

참고문헌

- 이승녕(1966) ‘15세기 국어에서의 [-는]계 조사의 기능에 대하여,’ 서울대 논문집 12.
- 채 완(1976) ‘조사 ‘는’의 의미,’ 국어학 4, 국어학회.
- 채 완(1979) ‘화제의 의미,’ 관악어문연구 4,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최수영(1984) ‘한국어의 주제화와 주격 조사: 조사 ‘는’ ‘가’를 중심으로,’ 어학연구(서울대 어학연구소) 20-3; 233-250.
- Choi, Soo-Young (1986) ‘Solving the Problem of the Korean Topic/Subject Particles nun and ka: A Paradigm and a Text Analysis,’ *Linguistics* 24, 351-369, The Hague: Mouton.
- Givon, Talmy (1976) ‘Topic, Pronoun and Grammatical Agreement,’ in C. Li, ed., *Subject and Topic*, 149-188, New York, Academic Press.
- Givon, Talmy (1979) *On Understanding Grammar*, Academic Press.
- Givon, Talmy (1981) 문법 이해론, 범한서적, 이기동 옮김.
- Jakobson, Roman (1971) ‘Why ‘Mama’ and ‘Papa?,’ In Roman Jakobson, *Selected Writings*, 2nd expanded ed., vol. 1, 538-545, The Hague: Mouton.
- Jakobson, Roman (1972) ‘Louvain lectures,’ In M. van Ballaer (ed.), *Aspects of the Theories of Roman Jakobson-Memoir*, Leuven: Katholieke Universiteit.
- Jakobson, Roman and Halle, M. (1971) ‘Phonology and Phonetics,’ In Roman Jakobson, *Selected Writings*, 2nd expanded ed., vol. 1, 464-504, The Hague: Mouton.
- Kaplan, Robert B. (1966) ‘Cultural Thought Patterns in Inter-Cultural Education,’ *Language Learning* 16, 1-20. Reprinted in Allen & Campbell eds. (1972)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McGraw-

⁷ Whorf(1976: 73-78)은 언어가 원어민의 의식세계의 탐구의 도구라고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언어학이란 근본적으로 의미의 탐구이다. 언어를 탐구하여 그 속에 용해되어 있는 원어민들의 의식, 문화, 삶의 본질을 캐내는 것이다.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형체가 없는 의식을 언어를 통하여 잘 조명하고 관찰하면 원어민의 삶의 본질(the true shape)을 발견하게 된다. 언어학의 본질은 의미의 탐구이며 과학이 발달하여 탐구 절차가 세련되면 그 절차는 더욱 더 심리학적이고 문화적이 되며 수학적 정확성과 시스템적이 될 것이다. 언어학은 사고 체계 연구의 기초가 되며 모든 인간 과학들에 대한 마지막 분석 체계이다.”

- Hill Press.
- Kim, Han-Kon (1967) 'A Semantic Analysis of the Topic Particles in Korean and Japanese,' *Language Research* 3-2, Seoul National Univ.
- Kuno, Susumo (1973)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Language*, The MIT Press.
- Lee, Chung-Min (1973) *Abstract Syntax and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Seoul, Pan Korea Book Co.
- Lee, Ki-yong (1967) 'A Syntax Analysis of /nin/ and /ka/, ' *Chonnam Univ. Master Thesis*, Published also in *Chonbuk Univ. Journal* 11, (1969).
- Li, C., ed. (1976)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 Li, C. & S. Thompson (1976) 'Subject and Topic: A New Typology of Language,' in Charles Li, ed.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 Norton, Robert F. (1978) 'A Contrastive Analysis of Korean and American Writing Styles as Expressed in Expository Essay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 Peirce, Charles S. (1933) *Principles of Philosophy*, Charles Harshorne and Paul Weiss (eds.), *Collected Papers*, vol. 4,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Ramstedt, J. (1939) *A Korean Grammar*, Helsinki.
- Robertson, John S. (1980) 'Hangs-a-man: A Paradigmatic Criticism,' Paper read at the Rocky Mountain Modern Language Association, Albuquerque, New Mexico.
- Robertson, John S. (1982) 'The History of the Absolute Second Person Plural: From Common Mayan to Modern Yucatecan,' *International Journal of American Linguistics* 48, 436-444.
- Robertson John S. (1983a) 'Hangs-a-man: Linguistic Aspects of Literary Criticism,' Paper read at the Linguistics Circle at Brigham Young University, Provo, Utah.
- Robertson John S. (1983b) 'From Symbol to Icon: The Evolution of the Pronominal System from Common Mayan to Modern Yucatecan,' *Language* 59, 529-540.
- Russell, Robert (1985) 'An Analysis of Student Errors in the Use of Japanese-wa and -ga,' *Papers in Linguistics* 18, 197-221.
- Sapir, Edward (1922) *Language*, New York, Harcourt. Reprinted in D. Mandelbaum, eds. (1949) *Selected Writings of Ed. Sapir*, UCLA Press.
- Sohn, Ho-Min (1980) 'Theme-Prominence in Korean,' *Korean Linguistics* 2, 1-19.

- Sohn, Ho-Min (1981) ‘Multiple Topic Constructions in Korean,’ *Hangeul* 174, 669–686.
- Trubetzky, N. (1975) *Letters and Notes*, The Hague: Mouton.
- Watabe, Masakazu (1978) ‘An Examination of Topic in Japane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Waugh, Linda R. (1976) *Roman Jakobson’s Science of Language*, Lisse: Peter de Ridder.
- Whorf, Benjamin (1976) ‘Language and Logic,’ in B. Carroll, ed.,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Yang, Dong-Whee (1974) ‘On the Notion of Topic,’ *Journal of Korean Cultural Research Institute* 23 & 24, Ewha Woman’s Univ.
- Yang, Dong-Whee (1975) *Topicalization and Relativization in Korean*, Pan Korea Book Corp.
- Yang, In-Seok (1973) ‘Semantics of Delimiters in Korean,’ *Language Research* 9-2, Seoul National Univ.

ABSTRACT

A Paradigm for the Korean Topic/Subject Particles -*nun* and -*ka* : Mathematical Paradigm and Text Analysis

Soo-Young Choi

Many studies have been done for the topic/subject particles ‘-*nun*/-*ka*’. However, there is still great confusion in the usage of the two particles, especially in a ‘double subject’ sentenc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problem could be solved by a paradigm based on a mathematical paradigm that shows the relationship of the degree of markedness. A comprehensive text analysis is done to test the paradigm and to determine the distribution pattern of ‘-*nun*’ and ‘-*ka*’ for topic and subject.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power of the mathematical paradigm is supported by the text analysis.

363-791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영어교육과